

전 세계가 인정한 제주기상 100년

- 제주지방기상청 “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” 선정 -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올해 스위스에서 개최한 세계기상기구(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, 이하 WMO)의 제19차 세계기상총회('23.5.22.~6.2.)에서 “100년 관측소(Centennial Observing Station)”로 선정되었다.
 - 이를 기념하여 6월 29일(목) 제주지방기상청 청사에서 “WMO 100년 관측소 현판식”을 개최했다.

- 제주지방기상청은 1923년 5월 1일부터 현재의 위치(건입동)에서 100년 동안 기상관측을 수행해왔으며, 부산(1904년)과 서울(1908년)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 “WMO 100년 관측소”로 선정되어 제주의 기상관측이 세계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.

- WMO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장기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장기관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전 세계 WMO 회원국 가운데 100년 관측소를 선정하고 있다.
 - 100년 관측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△관측소 100년 전 설립 △미관측 기간 10% 미만 △WMO 관측 표준에 따라 운영 △지속적 품질관리 등 WMO의 필수 기준 10가지를 충족해야만 한다.
 -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2번째(중국 16소, 일본 1소)로 많은 “100년 관측소”를 보유하고 있다.

-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“1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상관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민의 이해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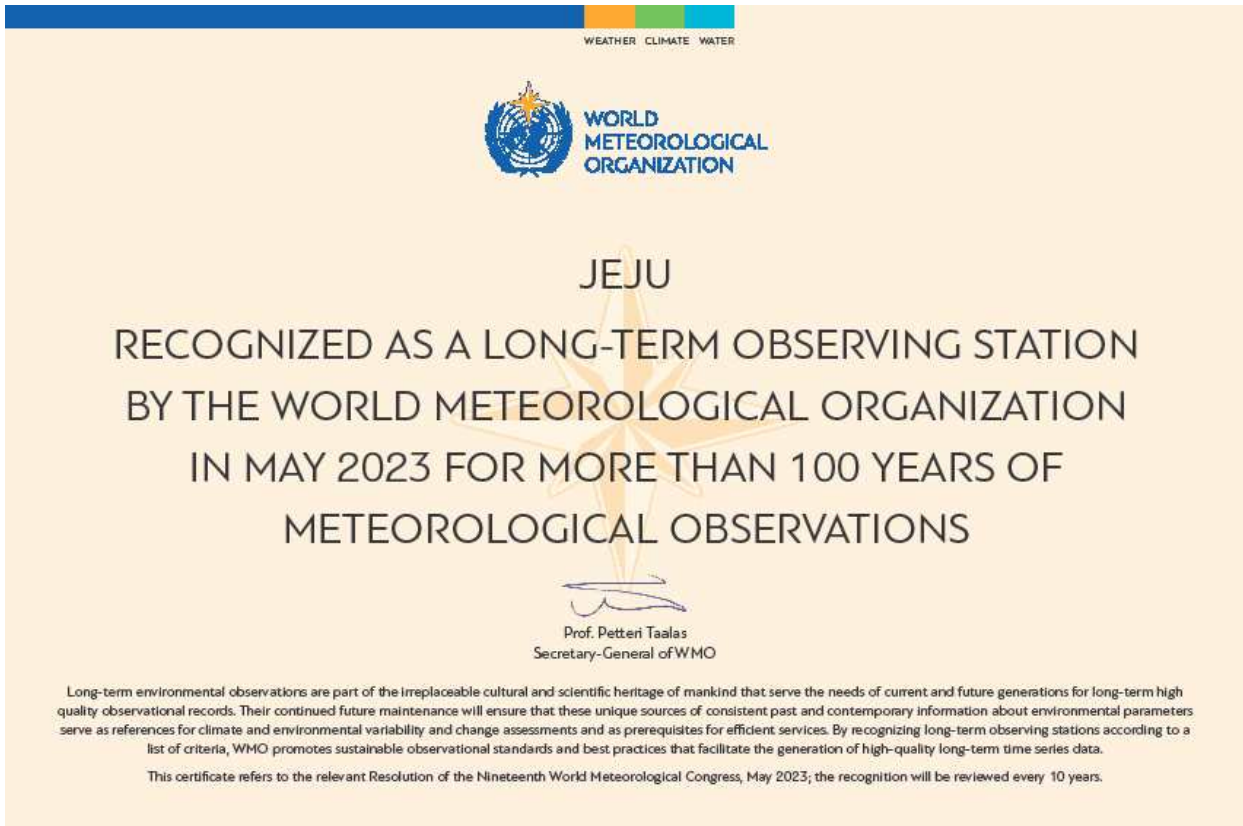
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 100년의 고품질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주도민의 삶에 필요한 날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.”
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 현판식 사진
2. 제주지방기상청 연대별 사진
3. 제주지방기상청 연혁
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강영범 (064-909-3950)
		담당자	주무관	시미정 (064-909-3953)



< 현판 제막 >



< WMO 100년 관측소 인증서 >



< 제주측후소(1920년대) >



< 제주측후소(1940년대) >



< 제주측후소(1960년대) >



< 제주측후소(1980년대) >



< 제주지방기상청(1990년대) >



< 제주지방기상청(현재) >



< 제주지방기상청 관측장소(현재) >



1923. 5. 1	설립, 관측개시	전남도립 제주도 측후소
1949. 12. 16	대한민국 정부조직 직제 반영	문교부 국립중앙관상대 제주측후소
1992. 3. 13	명칭변경	제주기상대
1998. 2. 28	승격	제주지방기상청